

전문적 직능인으로서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김 정 란

상지대 인문사회대 교수



1.

우 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전체가 원칙을 잃어버리고 알뜰한 실리만을 좇다가 자초한 결과이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이행해 가면서 세계인들이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원칙을 무시하고 실리만을 좇아가는 사회가 경쟁력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질적 개발의 척도는 이제 한 사회의 건강지수가 아니다. 21세기에는, 내적 건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는 물질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하더라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약간만 분석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거꾸로 된 길을 걸어왔다. 밥을 조금 더 먹느라고, 그 밥이 진밥인지 된밥인지, 돌이 으적으적 씹히는 돌밥인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밥술만 꺼안고 있는 사이에, 밥은 쉬어 버렸다. 쉰 밥을 헝구어 먹자고? 아니, 쉰 밥은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 그리고 밥을 새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쉰 밥 술을 끌어안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있다.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굳은 몸은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장 맛을 매가 무서운 것이다. 기득권 층일수록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나라야 병들든 말든, 도무지 관심이 없다. 현상만 유지할 수 있다면, 독약이라도 퍼먹을 태세다.

우리 사회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범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합작품이다. 약간의 물질적 성취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천박성을 눈가리며 아웅하고 속여 온 타락한 정치인들,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에게 휘둘러 온 의식수준이 낮은 국민, 기업을 통해 국가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기는커녕 제도에 편승해서 자기 왕국 만들기에 급급했던 재벌들, 그리고 알뜰한 처세와 아부로 일관하며 곡학아세(曲學阿世)해 온 지식인들이 사박자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누가 더 잘했네, 더 잘 못했네, 하고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록 더더욱 아쉬운 것은 지식인들의 역할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은 누구보다도 지식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어놓는 일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에 지식인은 있었다. 그러나 과연 지성인이 있었는가? 있었다 한들,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경의를 표했는가?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역사의 막 뒤로 내팽개쳐오지 않았는가?

필자는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프랑스 문학의 성취 그 자체보다도 문학을 관통하며 흐르는 그 찬란한 지성사를 부러워했다. 그 면면한 흐름과 그 흐름을 수놓는 대차고 단호한 지성인들의 존재. 그들에게 '참여'는 조금도 새삼스러울 것 없는 주제이다. 참여문학을 하든 순수문학을 하든, 그들은 행동의 필요성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

는다.

지중해의 찬란한 햇살 속에서 자라나, 존재의 탐미적 감미로움에 대한 발달한 미각을 가지고 있었던 알베르 카뮈도 2차대전 도중에 열렬히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의 문인들과 지식인들은 어땠는가? 최남선과 이광수로부터 시작된 曲學의 역사는 유신과 문민정부까지 이어지며 슬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 눈은 여전히 阿世에 능한 지식인들이 피우는 안개에 가려져 진정한 삶의 비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그것은 해묵은 순수냐 참여냐 하는 관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관념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어떤 논의도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를 강타한 미증유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분명한 현실인식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관념적 논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실 인식이다.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세계 안에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돌아가 몸을 숨길 상아탑은 없다. 설사 당신이 개인적으로 상아탑을 마련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지금 불고 있는 폭풍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그 폭풍에 대비하는 일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상아탑은 무너진다.

2.

필자는 5~6공 시절에 몇몇 존경받는 문인들이 독재정권에 아무 의식 없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아쉬워서 曲學의 비참한 명단에 자기 이름을 끼워넣는 걸까. 그때 필자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미숙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좋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스스로의 발 밑을 허무는 일을 그토록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은 '70~'80년대를 통과하면서 많이 극복되었다. 정치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삶을 관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정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문화적으로는 그 때문에 웅색해지기마저 했다. 정치에 기대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문화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개안하지 못한 지식인들의 숫자는 적지 않다.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집단은 아무래도 교수들이다. 정치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교수들의 입장은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로 나뉜다. 한쪽 집단은 아예 정치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그거야 하인들이 하는 짓이지, 양반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고고한 태도이다. 그들은 '학문의 순수성'을 굳건히 믿고 있다. 다른 한쪽 집단은 아예 교수직을 정

치를 하기 위한 발판 정도로 여긴다. 학문 연구는 뒷전이고, 정치인들과 줄대기에 바쁘다.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바라보고 있다. 줄만 보이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얼른 움켜쥔다. 우리는 그런 교수들을 신물이 나게 보아 왔다. 그리고 그런 교수 출신 정치가들이 얼마나 소신 없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판을 어지럽혔는지도 알고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교수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어떤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교수들이 상아탑에 들어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꼬일 대로 꼬인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고하고 순수한 학문적 입장만 고수했다간, 일은 점점 더 나빠진다. 숭고한 당신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야바위꾼들은 더욱 더 기승을 부려댈 것이다. 정치 지향성을 가진 해바라기 교수들만이, 꼭 필요에 관한 한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거대 언론을 끼고, 진실을 외면한 채 교언영색의 혀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지식인들은 외국의 지식인들보다 몇 배 유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의 터와 현장을 모두 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이미 상아탑은 없다. 언젠가 다시 고요한 상아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어지러운 판을 정리하는 일을 의식있는 지식인들이 떠맡아야 한다.

3.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일단 교수들의 정치 참여에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한, 직접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직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당은 아직까지 정책 정당이 아니라 보스들과 지역감정을 중심으로 모인 원시적 패거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적합한 정책을 내어놓아도 그것의 정책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 교수들은 아직까지 충분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교수들은 대체로 책상물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교수 출신 정치가들의 책상물림 정책 때문에, 우리는 슬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 교수들의 현장 감각은 많이 떨어진다. 현장 실습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 감각 결여는 특히 해외유학과 교수들에게서 심각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이, 한국 사회를 외국에서 배운 이론의 실습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맥락과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런 철없는 이론가들—특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다분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기능주의적 사고방식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교수들이 우리 문화의 식민화를 점점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이 남의 사회의 맥

락에서 발생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자생 맥락은 계속 툭툭 끊어지고 비비 꼬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교수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한 요소들을 걸어내고 교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내어야 한다. 필자는 교수들이 정당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능적 대표로서 각 분야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본다.

그 사이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당 성격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한심한 정당을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수준의 붕당 정치에 아무리 황금 같은 정책을 제시해 보아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모든 문제가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 정서적 수준에서 논의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세분화된 직능적 대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의식있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내어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처럼 현실적 맥락을 무시하고 위에서 아래로 마구잡이로 하달시키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참여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 직능인으로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합의된 정책을 입안하는 민주주의적 정치 참여 방식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현실감각을 익혀야 한다. 실천에 대한 욕구만 가지고 있다고 언제나 그 실천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바탕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실천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덤벼 댄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천천히 가자. 지금은 영킨 신타래처럼 보이지만, 한 가닥씩 풀어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 각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뛰어 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국민들의 역량을 상승시켜서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 ♣

김정란/한국외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그르노블Ⅲ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상지대 인문사회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시인·문학평론가·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 『다시 시작하는 나비』, 『매혹 혹은 곁침』 등이 있고, 평론집으로 『비어있는 중심-未完의 詩學』, 『거품 아래로 깊이』, 역서로 『상징, 기호, 표지』, 『초현실주의』, 『20세기 문학 비평』 외 다수가 있다.